

■ 2017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심의평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 2017. 1. 25(수),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위원실
 - 2차 : 2017. 2. 16(목),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위원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동석, 박계리, 이수정, 이영준, 이예승, 이용백

2017년 시각예술분야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심의는 총 6인의 심의위원이 참여하였으며, 심의는 1차 서류심사, 2차 개별 PT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전시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전시기획의 독창성, 파급효과 등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심의는 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 확인하였으며 특정 신청인(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제안하는 발언은 일절 금지되었다.

전시지원사업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전시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심의기준인 기획자의 예술적 역량 및 기획의 명확성(30%), 전시 기획의 예술적 수월성(20%), 전시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2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에 따라 심의하였다. 전체 57개의 전시기획사업이 지원되었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총 19건을 선정 하였다. 1차 심의에서 선정된 19개 사업의 지원자들이 2차 심의에서 직접 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여 심의위원들은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총 11개의 전시기획을 선정하였고 530백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였다. 미술계에 새로운 문맥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심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전시, 혹은 시각예술 담론 생산을 통해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획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유명 작가 혹은 해외작가의 프로필에 기댄 사업 보다는 전시기획의 의도가 선명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지원자를 선정하였으며, 국공립미술관이 아닌 독립큐레이터의 활동을 지원하자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시기획을 중심으로 심의하였다.

이번 전시지원 사업에는 미술사적 문맥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전시, 특정 역사적 사건에 맞춘 시의성 있는 전시기획, 체계적인 어린이 미술교육에 집중한 전시기획, 지역 미술계의 문제를 극명하게 다룬 전시기획 등 큐레이터의 역량이 돋보이는 전시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특히 미술사의 문맥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전시기획은 방대한 아카이빙과 기획자의 발품이 느껴지는 전시기획으로 전시가 현실화 된다면 미술계에 상당한 이슈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시개념과 기획의도는 좋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선정되지 못한 기획안들도 다수 있었으며, 지원자가 수도권과 경기지역에 집중되었다는 현상은 여전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작년에 비해 선정건수를 줄이고 전시가 구현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금을 배정하였다.

시각분야 심의위원 일동